

보도자료

2024년 6월 24일 인천 2024-33호
이 자료는 6월 25(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4일(월) 12:00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4년 2/4분기 중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 보고서(2024.6월호)』 발간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4년 2/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소폭 증가하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제조업은 석유화학·정제, 식료품 등이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운수업 등이 증가
- 한편 한국은행(본부)은 15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지역경제 보고서(2024.6월호)*」를 발간
 -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
 - 2024년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포함세를 보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수록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1.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현장리포트(“인천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김규식 과장, 이현규 과장, 홍창덕 조사역

Tel: 032-880-0032, 0083, 0034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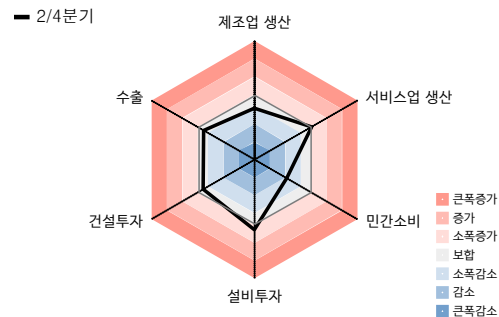
(1) 개 황

인천지역 경기 보합

2024년 2/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수출은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소폭 증가하였다. 건설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하였고 민간소비는 감소하였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1/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상승 전환하였으며 전세가격은 상승이 지속되었다.

경기 레이더¹⁾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정제, 식료품이 감소하였다. 기계·장비, 의약품, 석유화학·정제 등 나머지 업종들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확실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HBM 등 반도체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수주가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정제는 이전의 양호한 시장상황에 따른 생산량 증대의 기저효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기계·장비의 경우 반도체 장비 수요는 증가했으나, 건설 시장 침체로 건설 기계 수요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면서 보합세를 보였다. 의약품은 높은 생산량을 완만하게 유지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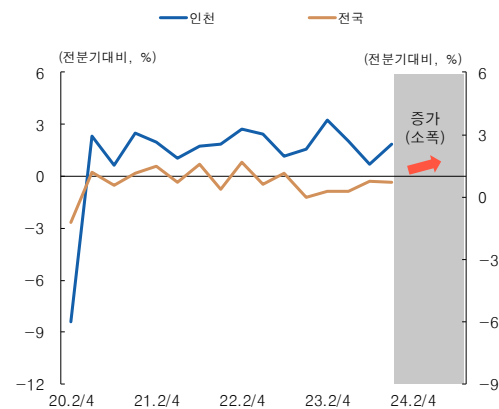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최근의 높은 생산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하고 철강은 건설 경기와 내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은 해외 수요 증가¹⁾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 목재·나무,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은 전분기와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증가하고 숙박·음식점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운수업은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²⁾ 증가세가 둔화하였으나, 해운 물동량이 증가³⁾한 것으로 나

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MICE 이용객 감소 및 업계 내 경쟁 증대로 매출이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도소매업은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아울렛 등 대형소매점 위주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은 전분기 대비 도소매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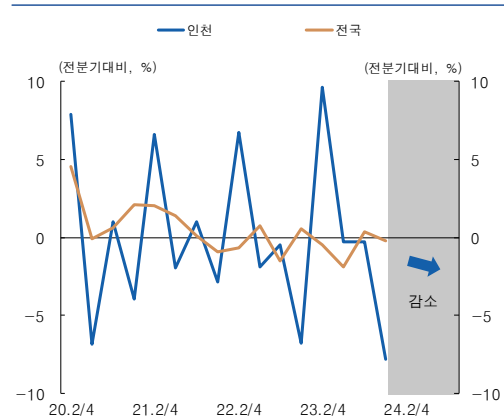
1) 셀트리온은 2024년 3월에 환자가 스스로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 형태의 램시마SC를 미국 시장에 출시하여, 정맥주사 접종을 위해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었던 램시마IV에 비하여 의약품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천공항의 2024년 4~5월 중 운항편수는 33,304편, 여객은 562.4만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24.8%, 33.2% 증가하여 1/4분기 월평균(+47.9%, +50.7%)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3) 1/4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한 1,298만톤이었으며,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0.7% 증가한 2,489만톤을 기록하였다.

(3) 수 요

민간소비 감소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1/4분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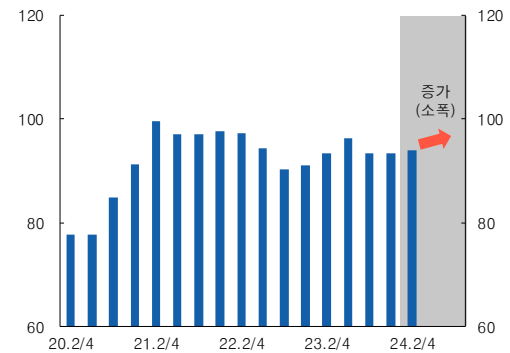
소비심리⁴⁾는 1/4분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민간소비 중 서비스 소비는 1/4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재화 소비는 하락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음식숙박업과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재화 소비의 경우 내구재는 자동차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각각 의복, 의료·식료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2/4분기에 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소폭 증가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1/4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5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군 확대에 따른 설비투자가 증가한 반면, 목재가구는 건설 경기 악화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감소하였다. 그 외 석유화학·정제, 식료품, 철강 등의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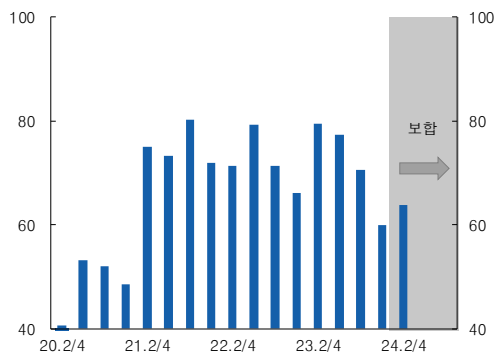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2/4분기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신규 스마트폰, 메모리 반도체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투자액을 늘릴 것으로 전망되나, 이외 석유화학·정제, 식료품, 철강 등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4)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4년 4~5월 평균 98.5로 1/4분기 평균 98.2에 비해 0.3p 상승하였다.

건설투자 포함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1/4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건설⁵⁾의 경우 주거용 건물 착공면적은 늘어났으나, 공업용 건물 착공면적은 감소하였다.

건설업 업황BSI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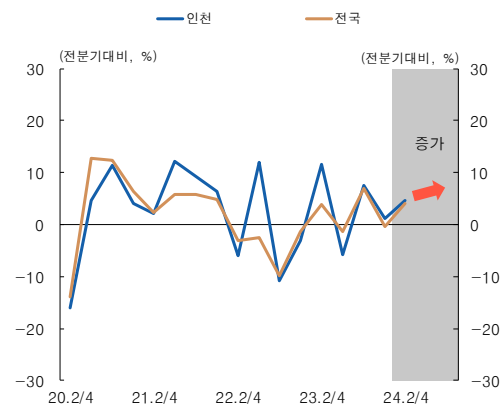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2/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수주액은 감소⁶⁾하였으나 건축수주액이 증가⁷⁾함에 따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⁸⁾은 1/4분기 수준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철강판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일평균 수출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5월 실적치(잠정)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는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⁹⁾하였으며,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점유율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다. 무선통신기기는 부품¹⁰⁾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중고차 수출¹¹⁾은 증가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신차 수출¹²⁾이 감

5) 4월 중 전국의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35.6% 증가하였으나, 인천지역은 67.2%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185.2%), 상업용(9.1%)이 증가하였으며, 공업용(-93.5%)은 감소하였다.

6) 1/4분기 중 인천지역 토목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35.2% 감소하였다.

7) 1/4분기 중 인천지역 건축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171.8% 증가하였다.

8) 4~5월 중 인천지역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농약 포함), 철강판, 무선통신기기로 일평균 수출 기준 1/4분기 대비 반도체(12.8%), 자동차(2.4%), 의약품(13.3%), 무선통신기기(7.2%)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철강판(-5.1%) 수출은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9) 4~5월 기준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미 수출은 9.3%를 차지하며, 4~5월 중 인천지역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2024.1/4분기 대비 일평균 기준 83.1%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10) 4~5월 중 인천지역 무선통신기기 부품의 수출은 일평균 기준 1/4분기 대비 10.5%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1) 4~5월 중 인천지역 중고차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1/4분기 대비 10.2%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 4~5월 중 인천지역 신차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1/4분기 대비 2.7%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소하였다. 철강¹³⁾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단가는 강보합이었으나 수출중량이 줄어들며 수출이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수출은 세계적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은 판매 제품군의 복미 및 유럽 시장 판매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의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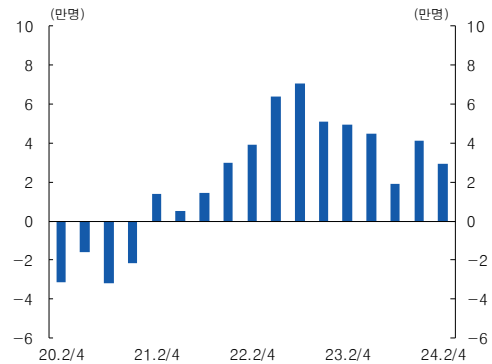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0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1/4분기(4.1만명 증가) 대비 감소되었다. 업종별 취업자수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3.4만명 → 2.9만명), 제조업(0.9만명 → 0.7만명) 및 건설업(0.4만명 → 0.2만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만명 → -0.3만명)은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전기·운수·통신·금융(0.7만명 → -0.4만명)은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2.7만명 → 3.1만명)는 소폭 증가했으나, 비임금근로자(1.4만명 → -0.1만명)는 감소 전환하였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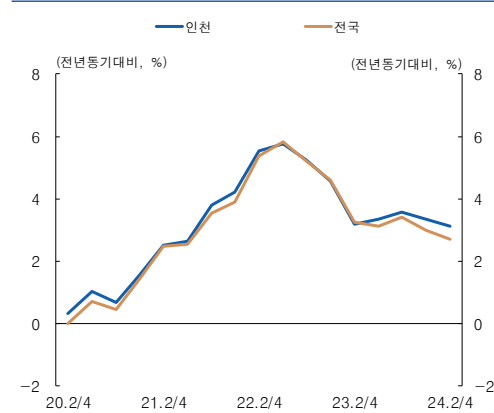
13) 4-5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단가는 0.6% 증가한 반면, 수출중량은 1/4분기에 비해 5.1%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여 1/4분기(3.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서비스(2.7% → 2.4%)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세 완화를 이끌었다. 특히 개인 서비스(3.5% → 2.7%)의 상승률 둔화폭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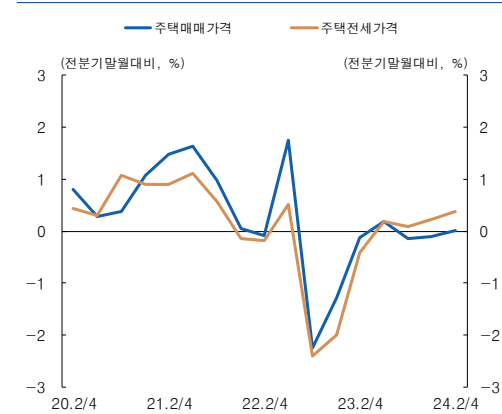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환 및 전세가격 상승 지속

4~5월 중 주택매매가격¹⁴⁾은 전분기말월 대비 0.02% 상승하면서 1/4분기(-0.11%) 대비 상승으로 전환하였다. 주택전세가격¹⁵⁾은 4~5월 중 전분기말월 대비 0.77% 상승하며 1/4분기(0.22%)에 이어 상승이 지속되었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서구(0.13%), 연수구(0.10%)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위주의 지역은 상승하였으나, 부평구(-0.25%), 미추홀구(-0.13%) 등은 공급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은 대부분 상승하였다. 부평구(1.29%) 및 계양구(0.92%) 등 중구(-0.01%)를 제외한 7개 구에서 상승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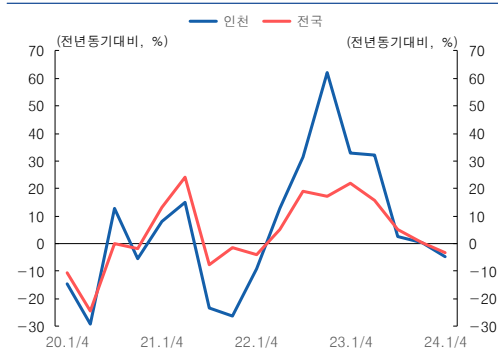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14) 5월 중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의 절댓값(0.02%)은 전국(-0.07%) 보다 작지만 수도권(0.00%)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 5월 중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 변동률의 절댓값(0.77%)은 전국(0.19%) 및 수도권(0.4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현황 및 전망

인천지역에서 자동차산업은 2022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중 11.0%, 제조업 고용의 8.9%를 차지¹⁶⁾ 하는 주요 산업이다. 동 산업 생산은 2023년 4/4 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4분기에는 4.8% 감소하였다. 이는 최근 2년여간 이어졌던 생산 증가가 반전된 것으로 1/4분기 전국 자동차산업 생산 감소 폭(-3.2%)보다 큰 수치이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¹⁾ 생산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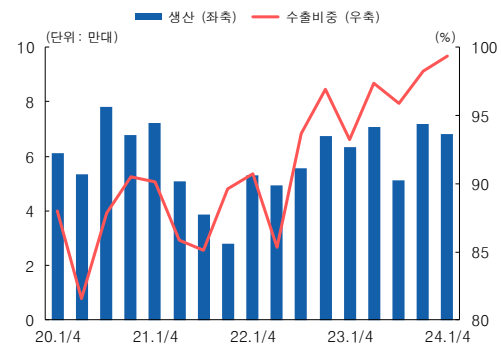


주: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준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인천지역 내 완성차 생산은 역내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GM 한국사업장¹⁷⁾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GM 한국사업장은 2014년 이후 8년간의 영업적자를 벗어나 2022년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대비 52.4%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전년대비 6.8%p 증가¹⁸⁾하였다. 2023년 GM 한국사업장의 완성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79.9%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전국 완성차 생산 증가(전년대비 13.0% 증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실적은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북미 시장 판매 호조에 기인하였다.¹⁹⁾ 2024년 1/4 분기에도 부평공장의 완성차 생산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갔다.

GM 부평공장 생산 및 수출비중¹⁾



주: 1) 해당 분기 완성차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율
자료: GM 한국사업장

인천 내 주요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²⁰⁾도 2022년과 2023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 1/4분기에는 GM 부평공장의 자동차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생산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부품생산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인천에 소재하는 완성차회사의 1차 협력업체 수가 감소²¹⁾하고, 국내 대형 완성차업체가 각국의 산업·공급망 보호²²⁾에 대응하여 부품의 현지 조달을 확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 인천은 2022년 기준 자동차산업에서 1.5만명을 고용하며 11.0조원의 생산, 4.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이는 전국 자동차산업 고용의 4.7%, 생산의 4.4%, 부가가치의 5.8%를 차지한다.(광업제조업조사)

17) GM 한국사업장은 완성차(뷰익 엔비스타, 트레일블레이저) 및 엔진을 주로 생산하는 인천 부평공장, 완성차(트렉스 크로스오버)를 주로 생산하는 경남 창원공장, 자동변속기 및 관련 소재를 주로 생산하는 충남 보령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8) GM 한국사업장은 2022년에 매출액 9조 103억원, 영업이익 2,758억원을 나타냈으며, 2023년에는 매출액 13조 7,340억원, 영업이익 1조 3,502억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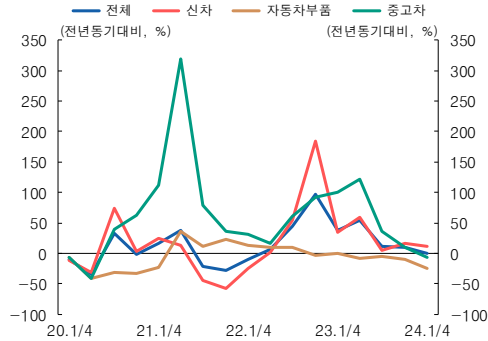
19) 2023년의 경우 부평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 대비 96.3%의 차량을 수출하였으며, 2024년 1/4분기에는 99.3%를 수출하였다.

20) 2023년의 경우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중 경신(+8.1%), 에이치엘클레무브(+12.5%), 한국단자공업(+11.0%), 대한솔루션(+11.4%)은 2023년 중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핸즈코퍼레이션(-3.7%)은 매출이 하락하였다.

21) 인천 내 완성차회사의 1차 협력업체 수는 2022년 54개에서 2023년 52개로 감소하였다.(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2) 미국의 경우 신부타자유무역협정(USMCA)을 통해 2020.7월부터 핵심 자동차 부품의 북미 내 원산지 비율 규정을 62.5%에서 75%로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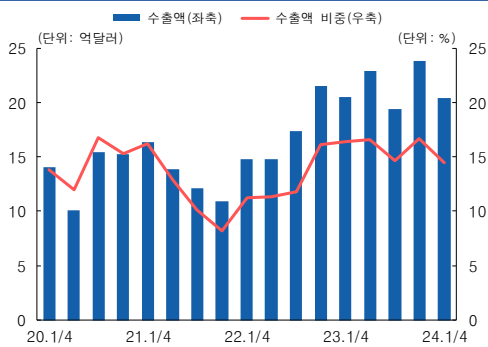
인천지역 자동차산업¹⁾ 수출 증가율



주: 1) MPI 741 내 HS 명칭(신차, 중고차), MPI 742(자동차부품) 기준, US\$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편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수출은 신차, 자동차부품, 중고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출이 2022년과 2023년중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2024년 1/4분기에는 감소(-0.2%)로 전환하였다. 신차 수출은 2024년 1/4분기에도 증가(11.3%)하였으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6분기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2024년 1/4분기에는 수출 감소 폭(-25.4%)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수출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분기 대비 2.2%p 감소하였다.

인천지역 자동차산업¹⁾ 수출액 및 수출액 비중



주: 1) MPI 741(자동차) 및 MPI 742(자동차부품) 합산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내 중고차 수출에서 50.8%를 차지(2023년 기준)하는 인천 중고차 수출은 2023년중 54.9% 증가하였다. 미국-EU의 대(對) 러시아 자동차 수출 금지로 인해 러시아 내 중고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에서 러시아 및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근 국가로의 중고차 수출이 급증한 데 기인한다. 다만, 2024년 1/4분기에 이들 국가에 대한 중고차 수출이 역성장하며 전체 중고차 수출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역 중고차¹⁾ 국가별 수출 증가율

	2023		24.1/4		
	수출액	(비중)	수출액	증가율	
전체	2,414.0	(100.0)	54.9	516.8	-6.3
키르기스스탄	499.1	(20.7)	296.2	118.2	55.4
러시아	323.7	(13.4)	27.6	79.2	-31.3
요르단	303.8	(12.6)	-19.7	24.1	-70.1
카자흐스탄	182.0	(7.5)	32.3	30.0	-48.7
리비아	160.3	(6.6)	135.0	20.9	-28.6
기타	944.9	(39.1)	58.9	244.4	27.4

주: 1) HS 코드 상 중고차 기준, US\$ 기준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에는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완성차의 경우 GM 한국사업장 내 인천 부평2공장이 2022년 11월 생산을 멈춘 상태이며, PHEV²³⁾ 차량의 국내 개발·생산 계획이 취소(24.3월)되는 등 향후 양산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공장 신설 및 설비 도입이 필요한 부품업체도 규제가 적고 세제 혜택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고 있다.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지역 특화 사업으로 선정된 모빌리티²⁴⁾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조속히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다.

23)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엔진과 전기 모터를 통합한 방식으로 전원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장시간 전기 동력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24) 중산전자기업부는 인천지역 특화 산업으로 물류·지열·주행 로봇 기업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3년간 국비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